

# 고흥 딸기·오이, 강소농 부자의 꿈이론다

### 스마트 첨단 시설화로 30여 농가 딸기 재배하며 연 매출액 22억 원 오이도 150여 농가서 52ha 재배...148억 매출 '시설원에 최대 효과'



고흥군에서는 겨울철 한파의 찬바람 속에서 강소농을 꿈꾸며 고흥 명품 딸기와 오이를 수확하는 농민들 열정이 코로나19 여파를 잠재우고 있다. 고흥 딸기는 고령화로 인해 재배능

가가 점차 줄고 있지만 스마트 첨단시설 현대화의 빠른 변화와 재배능가 영농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30여 농가에서 연 매출액이 22억원에 이르고 있어 겨울철 강소농의 매력있는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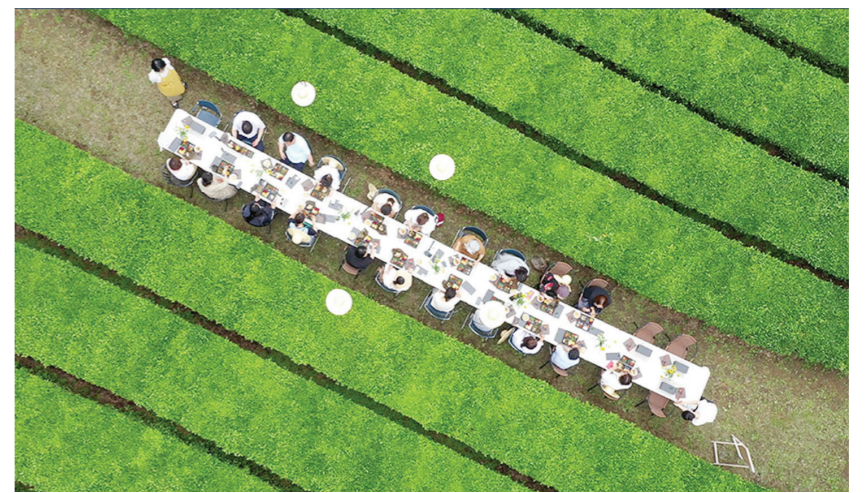
또한, 이 지역 오이는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은 유명한 백다다기 주산지로서, 150여 농가에서 52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이 148억원에 달하는 시설원에 최대 효과 작목으로, 이는 GAP인증 획득 등 선진 농법으로 이뤄낸 농민들의 자랑거리다. 송기군 고흥군수는 지난 20일과 27일, 딸기와 오이 수확이 한창인 농가들을 찾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송기군은 이 자리에서 "겨울철 대표 과채류인 딸기와 오이가 우리군 대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농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부농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해 예로부터 딸기와 오이를 토경재배 해오던 최적지로 여기에서 생산된 고흥도 딸기와 아삭한 오이는 일찍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아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시설원에 분야 11개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26억원의 지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강소농의 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생산기반 구축에 올해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보성군, 생태녹색관광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사업 선정됐다

차밭과 울포솔밭해수욕장 중심 트레킹 감성여행 프로그램 선별다 보성군은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생태녹색관광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보성군은 보성차밭을 중심으로한 △보성애 물들차(보성에 물들다) 프로그램과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파랑애 물들차(파랑에 물들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성 차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보성애 물들차 프로그램은 차밭 다 이닝 프로그램으로 차를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를 이용한 피크닉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차(茶)의 생태와 역사를 들으며 차밭을 걸어보는 워킹 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돼 있다.

△파랑애 물들차(파랑에 물들다) 프

로그램은 울포해변과 명교마을, 군학마을을 중심으로 감성 캠핑 체험을 선사한다.

차(茶)관련 음식으로 준비된 캠핑 세트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으며, 해변에 마련된 책방에서 독서를 즐길 수도 있다. 은빛 모래사장을 따라 걷는 노르딕워킹도 체험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 심혈을 기울인 생태관광과 미식 체험을 연계하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면서 "울포해양레저거점 사업 등의 대형 사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여행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복순기자

##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2년 연속 '우수' 선정

### 2011년 1월 개소...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성과급 지급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둬 올해도 인센티브 1,830만원을 받았다. 새일센터는 2011년 1월 개소해 광양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며,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직

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취업준비 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사후관리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기업 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과 취업을 촉진하며 구직여성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연계와 취업자 배출에 그치지 않고 연 3회 150여 개 취직 기업체를 방문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며 취업자들을 독려하고, 가사 및 자녀 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새일센터는 온라인마케팅 전

문사무원 과정 등 4개의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2개의 취업·창업교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진 새일센터장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창업과 취업 여성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많은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광양시 '사회혁신' 으로 지역문제 해결 나섰다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참여할 시민, 지역공동체를 모집한다. 2021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은 시민의 삶과 관련 있는 사회문제를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순천시, 공공기관 생활쓰레기 줄이기

### 2030년까지 20% 감소 목표...종량제 봉투 배출 실명제 실시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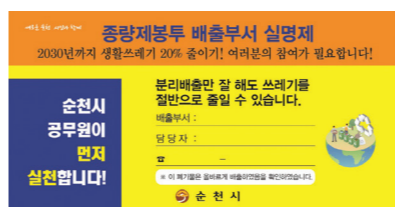
순천시가 2월부터 공공기관 종량제 봉투 배출 실명제를 시행하여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에 나선다.

순천시의 산하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 앞면에 부서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한 뒤 쓰레기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각 부서 집하장에 배출한 종량제 봉투, 재활용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레기 수거용기는 자원순환리더 활동가가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분리배출이 미흡한 부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우수 부서는 별도 표창을 수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를 올 상반기에 시정 각 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하고, 이를 효과 분석하여 2차로 하반기에 소방서, 교육청 등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3차



로 민간기업 등 일반 사업장에도 도입을 검토하여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순천시 폐기물 정책 브리핑에 '2030년까지 20% 쓰레기 감량 정책'과 관련하여 순천시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쓰레기 감량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려는 취지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읽고 싶은 책, 서점서 바로 빌려보세요"

### 여수시,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8개 서점 연계

여수시는 읽고 싶은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빌려보는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올해 2월부터 11월 까지이며, 20세 이상 여주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이면 누구나 월 3권씩 14일간 빌려볼 수 있다.

올해는 수령 기간을 2일에서 5일로 늘리고, 신청도서는 일반도서에서 아동도서까지 확대됐다. 발행연도 제한을 없애고 도서가격도 5만 원 이내로 늘어났다. 도서 신청은 여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yslib.yeosu.go.kr) 또는 모바일 앱(리브로피아)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도서는 카카오톡으로 수령 안내를 받은 후, 도서대출회원증을 지참하고 지정서점에서 대출·반납하면 된다.

연계 서점은 가을서점(여서동), 고은서림(화동), 나라서적(신기동), 미래서점(죽림), 진솔문고(여서동), 한빛서점(여서동), 한빛서점(학동), 흥지서림(충무동)으로 총 8개소다.

기획취재본부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